

“부산에 투자 하십시오!”
기업을 위한 동북아의 전초기지

부산의 과거

- 근대화 및 개발의 전초기지
- 신발·합판산업으로 국가경제 주도



부산항 개항



한국전쟁중 임시수도



노동집약산업

부산의 현재

국제컨벤션 중심

— APEC, 국제영화제, 모터쇼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

— 세계 5위 컨테이너 항만 (1.204만 TEU)



동남경제권 중추도시

— 조선, 기계, 철강의 중심지



21세기 동북아 해양수도

국가 남부권 중추도시

부산신항 완공, 신공항 건설

동남경제권 경제 공동체

동북아 문화 · 관광 중심도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북
항 재개발

하계올림픽

국제자유무역 도시

경제자유구역 완성

Asian Gateway 구축



최적의 투자환경 부산



최고의 비즈니스 인프라

부산신항만
- 2011년까지 30선석 건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 104 km² (3,171만평)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아시아의 10대 컨벤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유가증권/코스닥/선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 ❖ 지역생산 총 176만대
(국내 총생산의 51%)

선박제조·조선기자재

- ❖ 동남권 선박제조 중심지
(세계 생산량의 40%)
- ❖ 국내 조선기자재 생산량의
80%

편리한 교통망

부산국제여객터미널
- 매주 5개 노선 117편 운항



김해국제공항
- 매주 21개 도시 330편 운항



한국고속철도(KTX)
- 서울-부산 2시간대



항만배후도로
- 신항 ~ 명지 ~ 남항 ~ 북항 ~ 광안대교
~ 경부고속도로(57.92km)

우수한 연구 인프라

기외기외 여기기외

기업하기 좋은 도시

- 전국 최초 기업인에우 조례제정 운영
- 기업인애로해소 - 1 상담, 핫라인



매력적인 투자 인센티브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조례

입지 인센티브

수도권기업 이전 인센티브

100인 이상 기업 이전후 본사50, 공장100, 연구소 30인 이상

100억
(국·시비 포함)

역외기업 이전 인센티브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50억원

대규모투자 인센티브

500억원 이상 투자
경제적 파급효과 여부

기준 초과 지원

시설투자인센티브

초기정착보조금

고용인원 20인이상
10억 초과시 초과부담액 5%

3억

생산자서비스업보조금

금융보험 및 사업서비스업
20인 이상

5억

* 컨텍센터 유치 : 3년간 25개사 4,411석 유치

고용훈련 인센티브

고용보조금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3개월간 신규고용
20인 초과
(기타사업)

6개월간 초과인원당
월 50만원, 2억원
(1억원)

교육훈련보조금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신규고용 20인
초과, 1개월 이상 교육시
(기타사업)

6개월간 초과인원당
월 50만원, 2억원
(1억원)

산업단지 현황



산업단지 현황



센텀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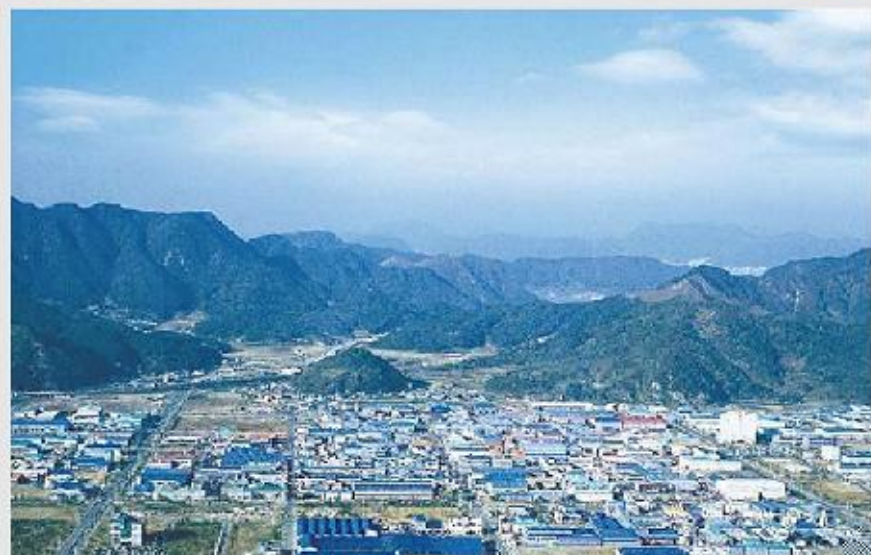
- 위치 : 해운대구 우동 · 재송동
- 규모 : 356천평
- 분양가격 : 3,667천원
- 입주시기 : 즉시
- 입주가능업종
 - R&D, BT, NT, IT 등



화전산업단지

- 위치 : 강서구 신호·화전동
- 규모 : 2,450천 m²
- 분양가격 : 154만원
- 공장착공 가능시기 : 2009년
- 입주가능업종
 - 자동차, 기계, 조선, 메카트로닉스 등

산업단지 현황



미음산업단지

- 위치 : 강서구 녹산동
 - 규모 : 1,080천평
 - 공장착공 가능시기 : 2010
- 입주가능 업종
- 자동차, 조선, 기계, 기타 제조업

장안산업단지

- 위치 :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 규모 : 400천평
 - 공단착공 가능시기 : 2008년 10월
- 입주가능업종 :
- 전기, 기계, 전자부품, 음향 제조업 등





석대산업단지

- 개발면적 : 19만 2천 평
- 토지이용계획 : 실수요자 직접개발 방식
- 공단착공 가능시기 : 2007년
- 입주가능업종 : 개발사업 시행자가 자율선정



장안읍1,2지구 산업단지

- 개발면적 : 130만평
- 토지이용계획 : 실수요자 직접개발 방식
- 공단착공 가능시기 : 2007년
- 입주가능업종
개발사업 시행자가 자율선정

“모든 것이 만족되는 부산!”
부산에 투자 하십시오!



부산의 미래

